

동양제철화학, 폴리실리콘 “쑥쑥”

삼성증권, 2009년 집중 수혜 전망 ... 모듈가격 하락으로 경쟁력 강화

동양제철화학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e) 사업이 태양광 시장과 함께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은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으로 원가경쟁력이 상승해 원료인 폴리실리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양정동 애널리스트는 “최근 태양광 모듈가격이 최고 수준에서 30% 하락하면서 경제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일조량이 풍부한 스페인과 이태리 등에서는 모듈가격이 와트당 3달러에서 2.5달러로 내려가면 기존 전력의 제조코스트와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제철화학은 태양전지 모듈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은 현재 장기 공급계약 형태로 100억달러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3>